

임마누엘·칸트의 美學說에 對하야

李庚烈

四

前述한 것과 가티 칸트는 美의 判斷과 美의 創造는 그의 美學에서 論하얏스나 그의 論은 美의 判斷問題에 置重하얏다. 美의 本質乃至 本質問題의 研究가 主된 部分이엇다.

그러면 칸트는 美의 本質을 如何한 것이라도 하얏는가.

칸트는 美를 一種의 快感이라고 하얏다. 快感에는 肉體的의 快感이 있는데 美의 快感은 一種 獨特한 快感이라고 하얏다. 여기서 이 一種 獨特한 快感이라고 하는 것은 肉體的의 快感을 말하는 것이니 所謂 無肉體的의 快感이 美의 快感의 特性이라고 하겠다. 이 點에서 칸트는 肉體的의 快感을 아른 價値와 區別하얏다. 美는 論理的인 興味(興味 又は 快感이라고 할 것)와도 또는 道德的인 興味와도 다른 것이라고 하얏다. 그리고 또 美가 주는 快感은 實際的인 功利的 그것과도 相異點으로 區別된다고 하얏다. 또다시 우리가 好衣好食에서 잇는 感覺的인 快感과도 다른 것이다. 美 道德上 目的이라든가 論理的인 目的 又は 實際 生活上의 어떤 目的을 目的으로 하지 안는 一種 特別한 合目的性이라고 하얏다.

이제 좀 더 詳細히 이 肉體的인 又は 無肉體的인 快感이란 것을 說明하자면 그것은

第一로 美의 快感은 道德的인 그것과 相異하다. 道德은 意志의 問題이며 더욱 理性的인 意志의 實行으로 完全을 企하는 것이나, 美는 快感 意志上의 目的을 目的으로 하지 안는 것이다. 여기에 善과 美의 區別을 알아야 한다고.

第二로 論理的인 美의 認識的인 興味와의 相異를 論컨대 美는 眞과 區別되는 것이다. 眞은 認識에 關한 事이며 認識은 概念에 特히 概念의 分析에 關한 事이다. 그러나 美에도 概念이 全然 無用이라는 것은 아니나 概念이 그 重要한 要素는 아니다. 그 위에 美는 概念的인 分析을 不必要로 하는 것이라고.

第三으로 美는 實際 利益을 써나서 잇는 快感이라고 한다. 이것은 더 [분]

釋하지 말고 그만두자.

第四로 美는 感覺的 快樂에서 생기는 快感과 區別된다. 感性的 快感은 單히 直接으로 事物이 五官을 刺戟함에 依하여 생기나, 美의 快感의 感賞으로 생기는 藝術感은 全然 이와 相異하나 美의 實物이 必要치 안고 現象만으로 足하다고 感覺 快[感]은 實質的이나 美가 주는 快感은 形式的이다. 形式的이기 때문에 美의 快感은 單히 □象하고 觀想함으로 생기는 것이다. 美는 모든 □求를 쫓아서 우리에게 깃뚨(재미)을 주는 것이다.

그래 칸트는 美의 本質을 말하여 그 第一件으로 美는 沒理解的 卽 無關心의 快感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칸트는 美의 本質을 다시 더 說明□하여 이르되 美的 判斷은 그 根底에 있어서 主觀的이라고 力說하였다. 元來 칸트哲學은 主觀的 哲學이었다. 實해서 美의 考察은 亦是 이를 免치 못하였던 것이다. 客觀적으로 美의 本體가 있을리 없고, 美도 認識의 境遇와 同樣으로 主觀 속에서 先天的 法則으로 나오는 것이라 하였다. 論理的 判斷과 相異하여 美的 判斷은 特殊한 快感에 對한 判斷임으로 그것은 第一 되는 主觀的 感情에 對한 判斷이다. 다시 말하면 美的 判斷이 主觀的이라는 말은 곧 그것이 感情的 判斷이라는 말이다. 이 가티 美는 主觀的 判斷이면서 오히려 普遍性, 必然性을 具備하였다는 것은 例의 칸트哲學 說明格으로 主觀性內의 客觀性을 □昧하는 것이니 곧 主觀의 先天的 法則이 構成해주는 客觀이다. 그래 칸트는 美的 快感의 發生을 吾人의 想像力과 悟性과의 調和的 協同을 生함으로 因하여 惹起되는 認識 能力의 自由로운 活動에 關한 것이라』고 說明하여 一種 獨特한 主觀的 判斷인 것을 말하였고, 여기서 더 말해둘 것은 칸트는 이와 가티 美的 判斷은 想像力과 悟性과의 두 能力으로 成立된다고 하면서도 美의 成立은 主로는 想像力으로 되고 悟性은 從이 된다고 했다. 그럼으로 칸트는 쫓다시 美의 成立을 말하여 美는 想像力의 自由로운 遊戲上에 成立된다고 하였다. 想像 作用이 아니고는 美를 捕捉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何如間 美는 論理的, 道德的, 實在的 束縛에서 쫓나 自由로운 遊戲的인 것으로 하여 주는 것은 形式에 있다고. 個個의 內容은 經驗的이어서 普遍性을 차자볼 수 업다. 어대까지 든지 形式的인대서 美도 그 普遍的 價値를 가지는 것이며, 實해서 美의 形式性에서 普遍的, 先天的인 美的 判斷 又是 美的 法則이 可能하다고 解釋하였다. 前述한 바와 가티 美的 快感은 그 實質보다도 單히 表象하고 觀想함으로 생긴다는 點에서 別서 그 形式性을 엿볼 수 잇는 것이겟다. 그런데 여기서 쫓 注意할 것은 칸트의 所謂 形式은 □히 解釋하기 困難한 것으로, 그것은 一種 構成的 原理로 의 形式이다. 그래 칸트가 美는 形式에 成立된다고 한 그

形式 法則性 더구나 아·프리오리인 法則性を 口昧하는 것으로 이 法則성이 있기 때문에 美意識 又は 美的 判斷이 普遍的으로 又は 必然的으로 可能하다 한 것이었다.

이리되어 칸트에게 있어서 美라는 것은 無關心的, 主觀的, 形式的 快感인 一種의 合目的性이다. 그리고 美的 判斷은 이와 가티 모든 束縛에서 져나 想像力으로 되는 自由로운 活動(全意識)을 依하여 可能한 것이며, 그것이 主觀的이며 形式的인데서 普遍的 妥當性を 가지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續)